

#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4. 05. 03. (금)

총 4페이지

##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집행유예로 선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구 분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담 당

십대여성인권센터(02-6348-1318)

□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초등학생들을 성착취한 사건의 범죄자 6명이 모두 풀려난 판결에 분노하여 결성된 강원지역 여성·아동·시민사회 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 59개 단체들의 연대체이다 (2024. 05. 03. 현재).

□ 2024년 5월 1일 (수),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집행유예로 선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믿으며 적극 환영한다.

※ 붙임.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성 명 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집행유예로 선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2023년 7월 18일 (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돈, 게임기 등으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그 친구까지 유인해 간음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위 피고인을 포함해 동일 수범으로 같은 초등학생들에 대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한 법정에 선 성인 남성이 총 6명이었으나 전부 풀려났다. 만 11~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간음한 자들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는데도 이를 수궁한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였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던 2024년 1월 18일 (목)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원심판결을 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성착취 범죄를 조장하는 격인 원심판결에 매우 분노하며, 사법부를 향해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명백한 성착취 범죄임을 자각하고, 2) 피해자의 용서없는 일방적 형사공탁을 참작하여 감형하지 말고, 3)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필시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초등학생을 대가로 유인했을 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간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매우 낮은 형을 선고해 왔다. 이 사건의 원심

판결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확신을 한 번 더 공고히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젊은 나이를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며 선처를 바랐고, 자신들의 범행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각 연대단체는 90여 개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동변호인단(형장우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김수현·박숙란·채우리·최은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아·박지영·배수진·신수경 변호사)도 각각 의견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위법함과 부당함을 날날이 지적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4년 5월 1일 (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 전부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1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A 징역 4년, 피고인B 징역 3년, 피고인C 징역 1년, 피고인D 징역 2년 6월, 피고인E 징역 2년 6월, 피고인F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써 단 1회라도 아동·청소년을 대가로 유인해 추행 또는 간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착취 범죄이며,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선언했다. 초범인지,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였는지, 처벌불원 또는 형사공탁을 하였는지 불문하고 전부 법정구속하였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믿는다.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을 대단히 환영하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항소심 판결도 검찰의 구형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4년을 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에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했었고, 다른 5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3년~15년을 구형했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피어내어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반복된다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우리 사회의 노력들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하는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끝.

## 강릉 초등생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총 59개 연대단체

(사)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25개단체)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 속초가정폭력상담소, 철원가정폭력상담소,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해솔상담소, 홍천가족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 강원여성쉼터, 새힘터, 아름다운집, 햇살의집, 해솔터, 파라밀쉼터, 마야의집, 마들렌의집, 강원이주여성상담소m **강원여성연대(6개단체)**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사)강릉여성의전화, 강릉시시소·청소년성문화센터, 동해시가족센터, 속초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16개기관)** 수원여성인권돋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사)대구여성회 대구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사)울산여성의전화 울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점프’,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있다’,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전북지원센터 ‘나우’, (사)제주여성인건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사업단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 (사)평화의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학교법인)박영학원부산광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텝, 사단복지법인범숙 경남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모해’,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여성인권티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나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충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보담’,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해봄,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팝’, **탁틴내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춘천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공동변호인단(형장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김현아, 박지영, 배수진, 신수경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김수현, 박숙란, 채우리, 최은미 변호사)**